



한국불교 중흥과 코로나19 극복을 발원하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입재식이 10월7일 동화사 통일대불전 앞에서 거행됐다. 총 82명의 만행결사 순례대중은 “한국불교 미래가 환하게 밝혀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며, 수행 진작이 불교 중흥의 주추를 세우는 일임을 만행결사의 한걸음으로 알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만행결사 자비순례 500km 대장정 오르다

팔공총림 동화사서 입재식

진제 종정예하 격려 법문
“佛恩 갚고 생사요달하라”
동참대중 “불교중흥” 발원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등 80여 사부대중이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대불전 앞마당에 섰다. 이들은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자비순례에 이를 올린 동참자들.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눈빛에 힘있는 목소리로 순례를 원수해 내겠다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한국불교 중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발원하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입재식이 10월7일 대구 동화사에서 거행됐다. 만물을 깨우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순례의 송고한 원력이 실린 사부대중의 삼귀의·반야심경 봉독이 이어졌다.

곧바로 결사대중을 대표해 우봉스님과 유승스님, 주운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이 만행결사 시작을 알리는 고불문을 합송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불교 미래가 환하게 밝혀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며, 수행 진작이 불교 중흥의 주추를 세우는 일이며 국민 화합으로 이어지고 세상 평화로 화답해 오는 길임을 만행결사의 한걸음으로 알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는 대중들을 향해 “2600년 전 새벽 별을 보고 깨달은 부처님의 길을 따라 사부대중이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진에 나서니 부처님 진리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현전함이라”

며 “사부대중은 부처님 은혜를 갚고 생사를 요달할 수 있도록 가일층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 인가’하고 이 화두를 간절한 마음으로 챙기고 의심하길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목스님도 “21일 간 매일 30km를 걷는다는 것은 지극한 신심과 원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이 이뤄질 기원하며 자비순례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입재식에서는 상월선원 입승진각스님이 아홉스님을 대표해 영화 ‘아홉스님’ 관람으로 지역 불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화사 주지 능종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조계종 호계원장 무상스님이 자비순례 동참대중을 대표해 능종스님에게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사부대중은 9시 30분경 입재식을 마친 직후 곧바로 순례에 돌입했다. 순례 길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이자 상월선원 회주 지승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 호계원장 무상스님 등 82명이 참여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 현장 3면

동화사=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박광호 대구경북지사장 daegu@ibulgyo.com



- 오연재의 ‘고려불화 700년의 향기’展 6면
- 가람과 외...팔공산 동화사와 암자들 10~11면
- ‘명상에 대한 모든 것’ 나왔다 14면

팔만대장경 웹툰 공모전 첫 대상 잔잔한 감성...고승형작 ‘가이없는’

시상식은 10월16일 해인사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현응스님)와 불교신문사(사장 정호스님)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웹툰 공모전’에서 고승형 씨의 작품 ‘가이없는’이 대상을 수상했다. 공동 주최자인 해인사와 불교신문은 ‘제1회 팔만대장경 웹툰 공모전’ 수상 결과를 10월8일 발표했다. 일반부 우수상은 권은영 씨의 ‘나의 해인사’, 중고등부 우수상은 고재은 학생(인천 천금중고)의 ‘불심의 증거, 팔만대장경’이 받았다. 대상작에는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각각 돌아간다.

이번 공모전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한국불교의 보물인 팔만대장경

을 보유하고 있는 해인사가 팔만대장경의 우수성과 해인사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 중고교생 및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에는 총 00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공모는 8월24일부터 9월29일까지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적합성(25점), 독창성 창의성(25점), 전달성 활용성(20점), 완성도(30점)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주최 측은 대상작 ‘가이없는’에 대해 “잔잔하게 흘러가는 스토리, 그림의 완성도도 높다”며 “해인사에 대한 소개나, 주제가 가지고 있는 잔잔한 감성이 아닌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제작한 부분이 눈에 띈다”고 평했다. 한편 시상식은 해인사 개산1218주년 다례제 봉행일인 10월 16일 열린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아픔의 역사 10·27법난 40주년

희생자 천도제·특별전 열린다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10·27법난 40주년을 맞아 법난으로 희생자 천도제와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스님)은 “10·27법난이 40주년이 되지만 그 고통의 역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며 아픔의 역사를 되짚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10·27법난 희생자 천도제는 40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10·27법난 발생 당일인 10월27일 오전11시 조계사 마당에서

봉행한다. 앞서 10월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10·27법난과 수습과정 등을 담은 특별전시회를 연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27일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공권력이 전국 5000여 사찰에 난입해 군화발로 짓밟고 2000여 스님과 총무원, 신도를 연행, 고문해 불교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사건이다. 불교계는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있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이 사건을 10·27법난으로 규정해 다양한 기념사업에 추진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社告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기념사업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스님)와 불교신문(사장 정호스님)은 대승경전의 꽃인 《화엄경》의 진수를 전하는 화엄산림(華嚴山林) 대법회를 기념하기 위해 신행수기, UCC, 자료 수집 등 기념사업을 진행합니다. 국지대찰이며 불보종창로 135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통도사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발행하는 불교신문이 함께 마련한 기념사업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신행수기 공모

- 주제: ‘나와 통도사 화엄산림’
-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 대상: 누구나(통도사 신도종 소속자 우대)

2 청소년 UCC 공모

- 주제: ‘화엄산림’, ‘통도사’
- 분량: 1분30초 이내 동영상
- 대상: 청소년(중, 고, 대학생)

3 통도사 및 화엄산림 자료 수집

- 주제: 화엄산림, 통도사 관련 사진, 동영상, 팸플릿 등 각종 자료
- 대상: 누구나

- 접수기간: 2020년 10월1일 ~ 12월30일
- 접수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영축총림 통도사 교무국(gyomu@tongdosa.or.kr) 불교신문(soolee87@kakao.com)
- 발표: 2021년 1월10일 통도사 홈페이지, 불교신문 홈페이지 및 지면
- 시상: 2021년 1월12일(화엄산림 회향법회)

주최: 영축총림 통도사·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

2020년 삼화사수록재

무관중 행사

국향지절 귀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하늘과 땅(天地), 저승과 이승(冥陽), 사생과 육범(水陸)의 모든 존재들이 무차별등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 삼화사수록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이는 조선초 삼화사에서 설행되었던 삼화사 수록재 무형의 종합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시키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행사로 진행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무형문화재삼화사수록재보존회 회장 임범

| 일시 | 2020. 10. 16(금) ~ 18(일) (3일간)

| 장소 | 두타산 삼화사

| 문의 | 보존회 사무국 033)534-7668
삼화사 중무소 033)534-7661

행사내용

- 첫째날 신중작법 / 과불불배이운
조전점안 / 쇄수결계 / 사자단
- 둘째날 오로단 / 상단 / 헌다례 / 설법 / 중단
- 셋째날 방생 / 하단 / 금강경독송 / 봉송회향

| 주최·주관 | (사)국가무형문화재삼화사수록재보존회

| 후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 강원도, 동해시, 대한불교조계종, 오대산월정사, 삼화사신도회